

「랏셀」의 哲學 及 社會改造論 (十三)

저자미상

正當한 種類의 社會主義 制度下에서는 藝術家가 自由를 □하는 二種의 方法이 있다. 彼는 自由의 藝術 以外에 一日 數時間 規則으로 正確한 勞働을 하여 終日 勞働한 사람보담은 적은 □함으로 報□를 受하는 것이 一인데, 이 境遇에 彼는 自己의 作品을 買收할 者가 잇스면 賣却하기를 自由에 放任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것이다. 이러한 制度에서는 多大한 利益이 있다. 이것은 藝術家가 되어야는 各人의게 絶對로 自由를 與한다. 그러나 彼는 엇더한 程度까지의 經濟的 損失을 忍□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것이다. 이것은 衝의 強烈한 사람에 對하여서는 問題가 아니다. 道樂的 人物은 比에 依하여 □□할 수가 있다. 무릇 多數의 青年 藝術家는 善良하게 組織된 社會主義의 社會이면 普通의 勞働을 半分만 하면 모할 것이다.

그리하여 엇더한 程度까지의 困難은 創造衝動力의 試練으로써 또 創造的 生活의 特殊한 歡喜와 差引□定으로로서 □□를 唱□할 것은 아니다. 다만 하나인 可能性은 生活의 必需品이 無政府主義者의 希望함과 如히 勞働하든지 아니하든지에 不拘하고 萬人에 均分하게 될 것이다. 이 計□에 잇셔스는 엇더한 사람이던지 勞働치 아니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世界에 잇셔스는 바가쑤드(放浪者)의 報□라고 稱할 수가 잇는 거에 相□가 업을 것이다. 生하기 爲함에 華麗한 것은 아니한다 하면 藝術家가 自己의 全時間을 藝術과 享樂에 □코저함에 『바가쑤드』의 報□써 生活하면 될 것이다. 곳 感情이 흐르는 대로 엇더한 새는 □步로 □行하여 世界를 求景하며 小鳥와 如히 空氣와 日光을 享樂하여 小鳥와 如한 同□의 幸福도 어들 것이다. 如斯한 사람은 社會生活에 色彩와 變化를 特할 것이다. 彼等의 人生觀은 堅實한 □□의 勞働者 그것과 異하여 참으로 苦□되는 文明이 조금만 하면 滅無하여질 것이라는 만흔 必要의 輕快한 心志의 要素를 在□식킨다. 萬一 彼等이 넘어나 多數할 새에는 勞働者의 非常히 重한 經濟的 貧□이 될 것이나, 이 時代에서는 比較的으로 享樂하며 □□한 일보담은 貧□과 自由의 單純한 享樂에 □□할 十分의 資格을 有한 者는 만치 아니할 것이다.